

# 「清芬室書目」考 [1]

—특히 鶴山の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朴 文 烈  
(昌原經商專門大學)

## 緒 言

‘古書を鑑定한다’<sup>1)</sup>는 것은 書誌學研究 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研究는 韓國을 비롯하여 歷代로 書誌를 研究하는 學者가 續出하고 그 理論도 자못 整然하지만, 실상 實物을 대해 보면 刊年의 推定이란 여간 어려운 作業이 아니다. 그것은 理論이 實物에서 나와야 하나, 實物의 性格이란 나라마다, 時代마다, 地域마다 特殊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韓國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다. 韓國에서도 古書의 刊年推定에는 學說도 많고 實物을 研究하여 그에 대한 所見을 披歷한 글도 적지 않으나<sup>2)</sup>, 그 중에서도 形態書誌學者인 李仁榮(이하 鶴山) 教授의 論이 韓國에서는 正確을 期했다<sup>3)</sup>는 評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막상 鶴山의 古書鑑定에 있어 刊年推定의 基準을 어디에 두었는가는 그가 아니고서는 그 깊이를 알아 낼 수 없다. 다만, 희미하나마 推定을 斟酌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그의 著書 중에서 가장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清芬室<sup>4)</sup>書目」<sup>5)</sup>이다.

「清芬室書目」이 世上에 선을 보인 것은 1968年 寶蓮閣에 의해 草稿가 影印된 것이 그 처음이다.

1) 同 論考에 대해서는 部分的이나마 版式에 관하여 春山(李)仁榮 教授의 ‘辭初の活字版について’《學叢. 京城, 第1輯(1943), pp.99~101.》, 李秉岐 教授의 ‘韓國書誌의 研究’《東方學誌. 서울, 第5輯(1961), pp.31~44.》, 白麟 先生의 ‘古版本의 裝幀과 版心に 對하여’《國會圖書館報. 서울, 2卷 11號(1965.11.), pp.8~12.》와 ‘古書의 裝幀과 版心に 對하여’《도널월보. 서울, 7卷 2號(1966.2.), pp.6~10.》, 任鍾亨 先生의 ‘黑口論’《書誌學. 서울, 第3輯(1970), pp.23~38.》이 있을 뿐이다.

2) 註 1) 參看.

3) 千惠鳳 教授는 그를 “形態書誌學의 造詣깊은 具眼者”《千惠鳳, 韓國에 있어서의 書誌學展開 및 그 課題. 韓國學報. 서울, 第7輯(1977), p.121.》로 極贊하고 있다.

4) 이는 鶴山의 書齋名임. 註 120) 參看.

5) 李仁榮, 清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蓮閣, 1968.

그의 敍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실로 書目類는 적지 않았으나<sup>6)</sup> 그들 舉皆是 單純히 項目의 列擧나 圖書의 內容과 그 實用에 偏重한 感이 없지 않다. 따라서 讀者의 學問研究의 眞實性에는 자못 案內役을 하고 있지만, 形態書誌學的인 側面에서 볼 때 古書鑑定, 특히 刊年을 推定해 낼 수 있는 方法은 探索해 낼 수 없다. 多幸히 鶴山의 「清芬室書目」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 注目を 끌고 있을 뿐이다.

筆者는 이러한 面에 着眼하여, 于先 그가 지은 「清芬室書目」이 이루어질 무렵의 學問의 깊이와 그 時代의 背景을 一瞥해 보고, 그의 生涯와 業績을 살펴 본 다음, 그가 왜 하필이면 形態書誌學에 關心을 돌렸을까를 알아내고, 「清芬室書目」의 收錄範圍는 물론, 編成體制에 이르기까지를 알아내어 書目的 形式을 推究해 보고, 특히 書目 속에 나타나는 解說 中에서 古書의 刊年推定에 대한 基準을 어떻게 設定하였으며, 그 結果로 나온 集計가 古書의 刊年推定에 어떻게 寄與했는가를 考究해 보고자 한다.

이의 究明은 얼른 보아 大端치 않을 것 같으나 韓國古代의 書籍史를 認識할 수 있는 한편, 古印刷技術史 上에도 적지 않은 發展面을 보여 줄 것이며, 書法의 體制(行款)에 대한 淵源을 알아내는 데도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 「清芬室書目」의 執筆時期과 史的 背景

鶴山이 著述한 「清芬室書目」의 編纂時期는 지금으로부터 37年前, 바로 解放 전 해인 1944年이다.<sup>7)</sup>

이 時期의 이전에는 韓國의 歷史的 現實이 실로 複雜多端했다.

그러나 이를 要約해 보면 地理的 條件과 歷史的 宿命으로 兩分될 수 있다.<sup>8)</sup>

우선 地理的 側面을 溯及해 보면 地政學的 位置와 麗·濟, 三國統一, 高麗時代, 朝鮮朝까지를 다섯 가지<sup>9)</sup>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地政學的인 位置를 보면 韓國의 民族이 文獻의 記錄을 尊重하는 本來的 意圖가 學者마다 깃들여 資料를 熱心히 調査해야 한다는 觀念이 앞섰고, 韓半島가 地域의 으로 넓지 않아 政治的으로도 劃一의 事業이 可能했고, 記錄의 保存狀態도 比較的 整頓되었던 一面이 있었다.<sup>10)</sup>

6) *ibid.* 敍.

7) *loc. cit.*

8) 下中彌三郎, 東洋史料集成. 東京, 平凡社, 昭和31(1956). pp.63~64.

9) *loc. cit.*

10) *loc. cit.*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몇 十年, 長期的으로는 몇 百年의 外患이 繼續되어 文化財의 損失이 莫大하였던 사실은 麗·濟의 一面이었고, 統一新羅時代까지만 하더라도 50年 間의 內亂에서 文化財의 命脈이 거의 끊어졌으나 多幸히 高麗에의 平和的 轉換으로 記錄文化의 殆半이 傳承되어 왔으며,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도 契丹軍의 侵入, 江華島遷都, 蒙古軍의 侵入, 다시금 江華島遷都<sup>11)</sup> 등 歷史의 迂餘曲折 속에서도 끈질긴 執念으로 大覺國師의 「續大藏經」을 비롯한 佛經類가 麗代를 窺되었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비록 政權은 交替되었지만 世宗의 文運振興과 正祖의 資料集成에 그 効를 보아 자못 文化가 燦爛하였으며, 18世紀 中葉만 하더라도 淸나라 文化의 反映에 感受性이 銳敏하여 淸朝의 考證學이 韓國에 들어왔는가 하면<sup>12)</sup>, 1910年代의 列強國의 強占을 당했던 韓國現實과는 달리 오히려 西洋文化의 交流를 促進하는 一面도 있어<sup>13)</sup> 韓國의 孤立은 겨우 免했었다. 그러나 1910年代의 朝鮮總督府 設置에 따라 民族文化의 啓發이 萎縮되었던 一面도 없지는 않았다.<sup>14)</sup>

이러한 歷程은 地政學의 으로 본 그 一面과 內憂外患에 따른 史的 變遷의 一面이지만, 다른 側面에서 볼 때에는 書目史 上의 變遷도 적지 않았다.

仁祖 年間의 金傑의 「海東文獻總錄」<sup>15)</sup>을 비롯하여 明宗時의 魚叔權의 「攷事撮要」<sup>16)</sup> 중의 「八道册板目錄」, 正祖 命撰의 「東國文獻備考」<sup>17)</sup> 중의 「藝文考」, 「奎章總目」<sup>18)</sup>, 「西序書目」<sup>19)</sup>, 同時에 徐有渠의 「鏤板考」<sup>20)</sup>, 1909年代의 「帝室圖書目錄」<sup>21)</sup>, 1921年의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sup>22)</sup>, 1934年의 同「補遺」<sup>23)</sup> 및 朝鮮總督府 編인 「朝鮮圖書解題」<sup>24)</sup>, 奎章閣 所藏의 「朝鮮古圖書目錄」<sup>25)</sup>이 國內에서 發刊되었다. 日本에서는 韓國을 研究하기 위한 書目으로 森氏의 「經籍訪古志」<sup>26)</sup>, 「圖書寮漢籍善本書目」<sup>27)</sup>,

11) 森田金夷三郎, 妻木忠太 共編, 模範最新世界年表. 京東, 三省堂, 昭和 9(1934). p.202.

12) 沈喆俊, 韓國 天文·曆學과 「主制群徵」. 圖書館學報. 서울, 第 2 輯(1973), pp.49~128.

13) 金泳鎬, 韓末 西洋技術의 受容. 亞細亞文化研究. 서울, 第31輯(1968.9), pp.295~348.

14) 洪淳禎, 韓日 文化交流의 史的 考察. 大丘史學. 大邱, 第15·16合輯(1978), pp.435~452.

15) 金傑, 海東文獻總錄. 影印本. 서울, 學文閣, 1969.

16) 魚叔權, 攷事撮要. 影印本. 京城, 京城帝國大學文學部, 1947.

17) 李仁榮. *op. cit.* 鈔.

18) 奎章閣 編, 奎章總目. 寫本. 4卷 3册, 正祖 5年(1781).

19) 下中彌三郎. *op. cit.* p.64.

20) 徐有渠 編, 洪命燾 校訂,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1941).

21) 下中彌三郎. *op. cit.* p.64.

22) *loc. cit.*

23) *loc. cit.*

24)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日韓書房, 昭和 7(1932).

25) 下中彌三郎. *op. cit.* p.64.

26) 李仁榮. *op. cit.* 鈔.

27) 宮內省圖書寮 編, 圖書寮漢籍善本書目. 東京, 圖書寮, 昭和 5(1930).

「內閣文庫圖書目錄」<sup>28)</sup>,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sup>29)</sup>, 「蓬左文庫朝鮮本目錄」<sup>30)</sup>,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sup>31)</sup>, 「成篋堂善本書目」<sup>32)</sup> 등이 나왔다. 淸 나라에서는 楊氏의 「留眞譜」<sup>33)</sup>와 「日本訪書志」<sup>34)</sup>, 佛蘭西에서는 Ma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éenne」<sup>35)</sup> 등이 나왔고, 그 밖에 特殊書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燦爛한 文化 속에서도 鶴山이 生存했던 時期와 그가 「清芬室書目」을 著述하기 위해 資料를 蒐集했던 그 前後의 事情을 살펴보면 交通만 하더라도 地方에서 京城까지 며칠이 걸렸던 時期였으니만큼 그 當時의 社會的 事情은 실로 거의 未開 그대로였다.

그러나 典籍은 各地에서 書肆에 의해 普及되었고, 書堂에 의해서 傳承되었으며, 門閥에 의해 保存되었고, 物物交換에 의해 書籍도 하나의 交易物로서 慶尙道 一帶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傾向<sup>36)</sup>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漢城의 골목길이나 市場 바닥의 차일을 친 店房에 古書가 陳列되었는가 하면, 骨董品商에도 동전, 망건, 손거울, 삼지, 담배, 담뱃대, 여러 가지 상자, 붓, 먹, 종이와 나란히 冊이 陳列되어 販賣되었으며, 繁華街의 골목마다 갓을 쓴 老人이 곱방대를 펼면서 冊을 펼쳐 놓고 팔던 時節도 없지 않았다.<sup>37)</sup>

佛蘭西 政府의 文政官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Maurice Courant은 當時의 事情을 보고 寸評을 加했는데 그 一面을 보면, 그 當時에 陳列되었던 冊의 特性은 形態上으로는 8切 내지 12切 版의 얇고 볼 품이 없는 冊이었으며, 붉은 실로 대여섯 군데 꿰맨 裝幀과 灰色의 얇고 부드러운 종이에 간혹 구멍이 군데군데 뚫리고 지푸라기나 흙덩이가 섞인 冊의 지저분함을 볼 때 當時 冊의 量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印刷가 粗雜했고 冊이 牟으로 접혔다고 했으니 이는 線裝本의 形態를 말하는 것 같으며, 冊張은 黑線이 있어 欄外의 餘白이 적고 上段에는 表題가 붙어 있으며, 下段에는 冊張番號가 쓰여졌는가 하면 위에서 4분의 1쯤 되는 지점에 魚尾가 있었다<sup>38)</sup>고 하는 것이 高작해야 當時의 書誌學者들이 본 見解에 不過했다.

28) 李仁榮. *op. cit.* 敍.

29) *ibid.* 敍.

30) *loc. cit.*

31) *loc. cit.*

32) *loc. cit.*

33) *loc. cit.*

34) *loc. cit.*

35)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3 Tome. Paris, Ernest Leroux, 1894~1897.

36) 李仁榮. *op. cit.* 敍.

37) Courant, Maurice. *op. cit.* pp.XIX~XX.

38) *ibid.* pp.XX~XXI.

한글로 된 古書도 있었고 價格도 10文 程度였으며, 漢字로 된 冊으로는 中國本에 비해 韓國本이 8·9 割이었고, 크기와 紙質은 優秀하다<sup>39)</sup>고 評했으며, 書店의 集結地는 鐘閣에서 南大門의 큰 길가, 踏橋附近이 中心地였다<sup>40)</sup>고 하였고, 經書新版이 많았으며 누르스름한 表紙에 藍色, 綠色 실로 裝幀한 寫本도 간혹 끼어 있었고<sup>41)</sup>, 坊刻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外來人의 눈에 먼 版으로서서는 王命版이 注視되었으며, 冊이 크고 表紙가 象牙빛 비슷한 黃色紙로 裝幀이 되어 있었으며, 보드랍고 질긴 종이에 鮮明히 印刷되었으나 面紙에는 印刷가 되지 않았다<sup>42)</sup>는 것으로 보아 官版의 一面이라고 附言하고도 있다.

물론 이러한 官版 이외에도, 질긴 흰 종이에 노란 살구빛 물감을 들인 백백한 木版무늬의 뒤가 없는 종이 등으로 製冊된 裝幀本도 坊刻本으로서 있는 듯하다.

當時의 交流相을 보면, 凡俗한 印本, 寫本의 貰册家들이 서울에는 많았으나 大邱, 平壤, 松都 등지에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落帙本도 許多했다<sup>43)</sup>는 것이 貰册家들의 實話였다.

Maurice Courant의 調査에 의하면, 當時 外國에는 M. Collin de Plancy가 蒐集해 간 東洋語學校의 圖書館 所藏本을 비롯하여 英國의 大英博物館, 日本의 増上寺, 上野圖書館 등에도 우리나라의 書籍이 많았다<sup>44)</sup>고 한다.

어떻든 그 當時의 實情을 보면, 韓國에서 出版된 古書들은 상당히 많은 種類와 많은 量이 國內外에 散在했던 것만은 틀림 없으나, 그것에 대한 國家的 施策에 의한 統一이나 혹은 書誌學者들에 의한 體系的인 分析은 없었던 듯하다.

이러한 點에 着想한 사람이 바로 鶴山이 아닌가 한다.

## II. 鶴山의 生涯와 그의 思想

### A. 鶴山의 生涯

鶴山은 全州 李氏, 號는 尋鶴山人 혹은 鶴山이었다. 鶴山으로 命名된 것은 주로

39) *ibid.* pp. XXI~XXII.

40) *loc. cit.*

41) *ibid.* p. XXIV.

42) *loc. cit.*

43) *ibid.* pp. XXIV~XX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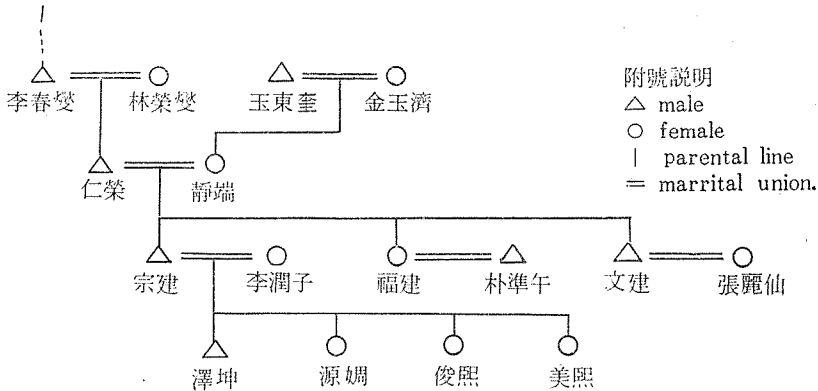
44) *ibid.* pp. XXVI~XXIV.

學術論文, 雜文<sup>45)</sup> 등이 있고, 尋鶴山人은 文字化되지 않는 듯하다.

그는 1911年 11月 6日 平壤市 倉田里 37番地에서 出生, 父는 木材商과 布木商을 했던 李春燮<sup>46)</sup>, 母는 林榮燮,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7代 獨子이다.

그의 出自\*를 戶籍謄本<sup>47)</sup>에 依據, 圖表를 作成해 보면 <表 1>과 같다.

<表 1> 鶴山の 出自\*



\* 이 出自는 戶籍謄本에 根據, Cultural Anthropology 《Keesing, Roger M. Cultural Anthropology: a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Rine Hart and Winston, 1976. pp.239~251.》의 系譜作成에 準하여 作成한 것임.

鶴山の 父 李春燮 이전은 3·8線 以北이어서 現實下에서는 그의 出自를 追究할 길이 없는 것이 매우 遺憾이며, 母의 系統도 分明히 兩班에 속할 듯하나 역시 未詳이다.

어떻든 鶴山은 平壤에서 태어나서 平壤에서 玉靜端과 結婚한 것 만은 틀림 없다. 지금 南韓에 生存해 있는 그의 妻 玉靜端에 따르면, 玉靜端은 春秋 61로 鶴山보다 는 아홉 살 아래로서 父母의 許諾下에 結婚한 사이이다.

玉氏는 本人이 謙遜하여 끝까지 校名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側近者에 의하면 專門學校 出身이라고 한다. 그의 先祖는 父가 初代 成均館 博士를 지냈고 法律家인

45) 日帝時代에 日本語로 쓴 學術論文이나 雜文에서의 그의 姓名은 '春山仁榮'《春山仁榮, 癸未字について. 學叢. 京城, 第2輯(1953), pp.89~92. 中 參看》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46) 世界人名大事典(서울, 文公社, 1974.) p.1304와 韓國人名大事典(서울, 新丘文化社, 1967.) p.708의 '李仁榮'條에서는 그의 父名이 '昌燮'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春燮'의 誤記이다.

47) 그의 戶籍謄本에 의하면 本籍은 '서울 特別市 鍾路區 惠化洞 貳拾貳番地의 拾八'로 되어 있으나 그 左項에는 '西紀 壹九五六年 壹月拾六日 李仁榮 就籍申告에 의하여 (原籍 平壤市 倉田里 參七番地) 本戶籍을 編制'로 되어 있으며, '李仁榮'條에는 '平壤市 倉田里 參拾七番地에서 出生, 玉靜端과 婚姻, 西紀 壹九四貳年 貳月貳拾五日 申告, 法令 第壹七九號에 의하여 就籍'이라 되어 있고, 그의 父는 '李春燮', 母는 '林榮燮'으로 되어 있다. 또 性別은 '男'으로 本은 '全州'로 되어 있으며, 出生은 '西紀 壹九拾壹年 拾壹月六日'로 되어 있다.

玉東奎, 母가金玉濟, 역시 傳統的인 儒學家의 집안이다.

鶴山은 2男 1女를 두었으며, 長男의 系統으로 1男 3女의 孫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家系를 이룬 鶴山은 徵文高普出身, 日本에 건너가 松山高等學校를 나온 뒤 1937년까지 京城帝國大學에서 國史(朝鮮史學科)<sup>48)</sup>를 專攻했다.

同 大學에 在學하면서부터 世稱 天才의 한 사람으로서 他人의 稱頌을 받아 온 鶴山은 同 大學을 卒業한 후 震檀學報에 韓國史에 관한 많은 論文을 發表하였는가 하면, 同 學會에서 重鎮으로 活躍하였던 탓으로 同 學會가 運營難에 빠지자 이를 안타까이 여겨 國學의 繼承을 試圖하여, 私財를 털어 震檀學報 第9輯을 發刊까지 한 功勞者<sup>49)</sup>의 한 사람이다.

그가 1940年, 즉 日帝時代에 延專(延禧專門學校) 講師로 敎壇에 서기 시작하여 普專(普成專門學校), 平神(平壤神學校) 등의 學校에서 講義, 國史를 擔當했으며, 解放 이후에는 京城大學 助敎授로 昇進, 延大(延禧大學) 敎授를 거쳐 國立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敎授를 歷任했다.<sup>50)</sup>

그 동안 教育에만 專念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官界에도 進出, 文教部 初代高等敎育局長을 歷任한 바 있었으며, 1949년에는 다시금 學界로 돌아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로 있으면서 初代의 高等考試委員까지 歷任한 學界의 重鎮이었다.<sup>51)</sup>

그러나 不幸하게도 1950年 6. 25의 戰亂으로 말미암아 拉北되고 말았으니, 그 이후의 業績은 물론, 學界에 차지하는 比重도 推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늘날 生存與否조차도 確認할 길이 없다.

다만, 그가 學界에서 活躍한 一面이 文字化되어 남겨진 業績을 보면 두 가지 傾向이 있다. 그 하나는 歷史學者로서의 鶴山이요, 다른 하나는 書誌學者로서의 鶴山이다.

## B. 鶴山의 思想

### 1. 近代 歷史學에 있어서의 鶴山の 位置

우선 歷史學者로서의 鶴山을 보면, 그가 태어났던 그 時期를 前後하여 謙谷 朴殷植과 丹齋 申采浩 등의 이른바 民族主義史觀이 擡頭되었다.

그들의 史觀에는 다만 濡化(Enculturation)로서의 韓國 固有性이 아니고, 涵化

48—50) 註 46) 對照

51) 이는 그의 妻 玉靜端 女史의 敎示와 그의 著書《李仁榮, 國史要論》, 서울, 民敎社, 1958) 중의 略歷 事項을 綜合한 것이다.

(Acculturation)로서의 史觀이 다소 깃들여 있었으며, 西歐의 近代歷史學的인 方法論을 適用하여 우리의 歷史를 새로운 方向으로 끌었던 一面이 있었다.

鶴山도 이러한 一面에 影響을 받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니, 1930年代부터 1940年代까지의 鶴山의 大學生活과 學會의 活動을 보아서도 이를 알 수 있듯이, 當時 實證主義와 日本의 植民主義史觀이 橫行되었던 때이니만큼 그의 史觀도 이들 史觀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라고 推測은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兩大的 實證, 植民의 史觀을 克服하고 謙谷과 丹齋의 民族主義史觀의 影響을 받아왔으며, 그 뒤에는 鄭寅普, 安在鴻, 文一平 등의 碩學들에 의해 繼承되어 온 民族主義史觀을 南滄 孫晉泰, 趙潤濟, 宋錫夏 등과 같이 韓國史를 研究하면서 그 중 南滄 孫晉泰의 유 다른 新民族主義 史學을 憧憬한 一面이 있었다.<sup>52)</sup>

그의 著述 全體를 區分해 보면, 理論을 追究하는 史觀은 新民族主義史觀에 立脚한 것이 大部分이고, 一部 考證을 要한 史學 方面의 著述과 書誌學 關係의 研究書는 모두 前者의 實證主義 方法論을 採擇하여 自己의 思想을 展開하였다.

그 實例를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鶴山의 論著 一覽表

區分	論 著 名	年 月 日	發 表 誌 名	備 考
×	南蠻人 朴燕考	1935 5	京城帝大史學會報 第7輯	
×	鮮初 廢四郡 地理考	1937 8	靑丘學叢 第29輯	
	〃	〃 11	〃 第30輯	
×	鮮初 女眞 貿易考	〃 11	震檀學報 第8輯	
×	大邱藥令市の起源に就いて	1938 7	京城帝大史學會報 第13輯	
×	鮮朝史に於ける北方問題の意義	〃 12. 1	城大學報 第22號	
○	清州本「詩人玉屑」	1939 2	博文 第5輯	
×	朝鮮史의 諸問題	1939 3. 18	朝鮮日報	
○	申忠一의「建州紀程圖記에」對하여	〃 4	震檀學報 第10輯	
○	朝鮮古地誌 數種에 對하여	〃 5	博文 第7輯	
○	閑 話	〃 8	〃 第10輯	
○	朝鮮古書 이야기 上	〃 12	〃 第13輯	
	〃 中	1940 1	〃 第14輯	
	〃 下	〃 2	〃 第15輯	
○	「太平通載」殘卷 小考	〃 9	震檀學報 第12輯	
○	「建州紀程圖記」解説	〃 8		自家出版
×	廢四郡 問題管見	1941 2	震檀學報 第13輯	
○	古書雜記	〃 6	春秋 第3卷6號	

52)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 歷史學의 發達. (李佑成, 姜萬吉 共編, 韓國의 歷史認識 下,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6.) pp.473~499.



○	朝鮮古書 中の 袖珍本	//	7	朝 光 第7卷7號	
○	「東國史略」について	//	9	城大學報 第61號	
○	乙亥字 小考	//	9	書物同好會會報 第17號	
○	朝初の活字版について	1942	1	學 叢 第1輯	
○	文祿役直前の朝鮮活字	//	3	書物同好會會報 第18號	
○	「攷事撮要」の册板目錄について	//	5	東洋學報 第30卷2號	
○	癸未字について	//	12	學 叢 第2輯	
○	大邱刊行の朝鮮本	1943		大邱府史	
○	「清芬室書目」	1944			
△	壬辰倭亂과 民族意識	1946	11. 26	朝鮮日報	
△	大學改造 斷行하라	//	12. 10	//	
×	李氏朝鮮 世祖 씨의 北方移民政策	1947	5	震檀學報 第15輯	
△	새로운 歷史學의 課題	//	7	조선교육 第1卷4號	
△	民族의 定義	//	8	大 湖 第2卷2號	
×	「韓國滿州關係史의 研究」	1948			乙酉文化社
△	우리 民族史의 性格	//	9	學 風 創刊號	
×	壬辰倭亂 以前の 對外關係	1948		新天地	
△	「朝鮮史概說」 跋文	1949		朝鮮史概說	
△	「國文學史」 跋文	//	5	國文學史	
△	우리나라  역사	//	8	博文出版社	
×	高句麗와 平壤	//	12	民 聲 第12號	
△	國史와 世界史	1950	3	學 風 第10號	
△	「國史要論」	//	4		金龍圖書株式會社

※ 1) 이 表는 脚註의 形式과는 無關히 著作年代 順으로만 一目瞭然하게 作成한 것임.

2) 題名 앞의 ○은 誌學關係 論著이고, ×는 實證主義史學關係 論著이며, △는 新民族主義史學關係 論著의 表示임.

위의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新民族主義史觀의 性格을 지닌 것으로는 <우리 民族史의 性格>을 비롯하여 「朝鮮史概說」의 跋文, <우리나라 歷史>, <國史와 世界史>, 「國史要論」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新民族主義史觀을 질게 부각시킨 것은 <우리 民族史의 性格>과 <國史와 世界史>, 「國史要論」이다.<sup>53)</sup>

우선 <우리 民族史의 性格>을 보면, 現實的 立場과 民族的 立場을 世界史的 觀點의 土臺 위에서 부각시키고 民族社會의 過去를 追究해본 것<sup>54)</sup>으로서, 이 論文에서는 內的 要因으로 우리나라가 處해 있는 것이 農業社會라는 것을 부각시켜 消極的 性格이라고 命名하면서도, 우리 社會는 그 範疇 속에 民族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으며, 外的 要因을 分析하여 國際上에 있어서 中間的 存在가 바로 韓國이라는 點을 前提로, 그것은 곧 佛敎와 儒敎文化의 影響에서 온 것<sup>55)</sup>이라고 斷定

53) 表 2. 鶴山의 論著 一覽表 參看.

54) 李仁榮, 우리 民族史의 性格. 學風. 서울, 創刊號(1948), pp.11~17.

55) loc. cit.

하고 있다.

이와 거의 同一한 性格을 부각시킨 또 하나의 論文으로는 <國史와 世界史>이다. 이는 우선 世界史 속에서 國史를 어떻게 認識하여야 하는가 하는 問題를 組上에 놓고 民族의 世界觀을 展開시킨 것<sup>56)</sup>이다. 즉 그의 理論을 보면, 三國統一 이전이 우리 民族의 胎動期였다고 前提하고, 그 成長期는 三國統一 이후부터 朝鮮 世宗時代였고, 그 沈滯期는 世宗時代 이후부터 甲午更張 直前을 指摘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覺醒期로는 바로 甲午更張 이후가 될 것<sup>57)</sup>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國史要論」에서 強調된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 民族이 어떠한 經路를 밟아서 오늘의 現實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歷史的 現實을 問題로 삼고, 透徹한 現代意識과 民族의 世界觀을 體得하여야 한다<sup>58)</sup>고 하는 것도 또한 그의 主論이다.

이와 같은 主論은 過去의 經驗을 土臺로 새로운 構想下에 우리의 民族史를 要領 있게 보자는 것<sup>59)</sup>이 그의 着眼點이며, 百科事典式, 羅列式을 버리고 時代的 背景과 關聯性, 事件의 原因과 結果를 밝혀 國史에 대한 全體的인 認識과 理解에 置重한 것<sup>60)</sup>이 그의 要論이다.

이와 같이, 그는 新民族主義史觀을 定立하고 그 아래에서 모든 歷史的 史實을 檢討해서 演繹의 方法으로 論述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演繹의 方法과는 달리 鶴山은 歸納의 方法도 適用하여 實證主義만을 追究한 點도 적지 않다.

그가 發表한 <南蠻人 朴燕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처음 漂流해 온 사람이 Jan Janse Weltevree가 仁祖 6(1628)년에, 孝宗 4(1653)년에는 Sperwer號에 乘船하였던 Hendrik Hamel 등 8인이 있었다<sup>61)</sup>는 史實을 論證하고, 1595年 和蘭의 北部 出身인 朴燕 역시 仁祖 5(1595)년에 漂流한 史實이 있었다<sup>62)</sup>는 것을 論證하여, 이가 韓國 最初로 入國한 外國人 新教徒라는 點<sup>63)</sup>을 밝히고 있다.

또한 <鮮初 女眞 貿易考>에서도 公貿易과 私貿易과의 限界를 論證하고, 鏡城, 慶源에서 行해진 主要 兩國 貿易品의 品目を 밝혔는가 하면<sup>64)</sup>, <廢四郡 地理考>에서

56) *id.* 國史와 世界史. 學風. 서울, 第10號(1950), pp.43~49.

57) *loc. cit.*

58) *id.* 國史要論. 서울, 金龍圖書出版社, 1950. 序.

59) *loc. cit.*

60) *loc. cit.*

61) *id.* 南蠻人 朴燕考. 京城帝大史學會報. 京城, 第7輯(1935), pp.35~43.

62) *loc. cit.*

63) *loc. cit.*

64) *id.* 鮮初 女眞 貿易考. 震檀學報. 京城, 第8輯(1937), pp.1~30.

도 玆城, 虞芮, 閭延, 茂昌의 位置가 바로 正祖 18(1794)年 高山里 僉使 元永胄의 「廢四郡 地方 巡察日記」와 正祖 19(1795)年 馬馬海士兵 李汝節의 「廢四郡 地方 踏查報告書」에 依據해서 究명한 事實<sup>65)</sup>이 있었고, <大邱 藥令市の 起源에 대해서>도 令市가 法令에 의해서 열리는 市場의 令市가 아니고, 季節에 따라서 열리는 令市였다는 點을 밝혔으며<sup>66)</sup>, <朝鮮史에 있어서의 北方問題의 意義>에 있어서도 六鎭과 四郡의 設置가 北方의 擴大에 중요한 契機가 되었다<sup>67)</sup>는 點도 論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朝鮮史의 諸問題>에서는 이미 史學者들이 檀君의 歷史에 대하여는 神話 또는 傳說에 不過하다는 點에 대하여, 精神史的 側面에서 科學을 통해 어떠한 論證이 혹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一考를 勸誘하는 一面<sup>68)</sup>도 있다.

<廢四郡 問題管見>이라는 論題에서는 四郡 撤廢의 結果가 軍事上으로는 國境防禦線의 後退였으며, 法制上으로는 四郡官制의 廢止를 招來했다는 點을 指摘하고, 이는 經濟的 利權의 一部를 拋棄한 것이지 領土權마저 버린 것은 아니라<sup>69)</sup>고 說明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李氏朝鮮 世祖 때의 北方 移民政策>에 있어서도 忠淸, 全羅, 慶尙 三道의 3次에 걸친 移民이, 海路로는 慶尙道 東海岸으로부터 北上, 咸鏡道 東海岸에 到着되었다<sup>70)</sup>는 史實과 陸路로는 慶尙道 北部에서 江原道 東海岸 地方을 거쳐 咸鏡道에 이르렀다<sup>71)</sup>는 史實과 또 한편으로는 慶尙道를 거쳐 關西地方에 移住, 다시 咸鏡道 地帶에 移住된 路程을 究明해 냈다.<sup>72)</sup>

「韓國滿州關係史의 研究」에서도 全 7章에 걸쳐 論述하였으나, 그 中 第1章에 論及한 壬辰倭亂의 近因이 바로 黨爭에 있었고, 對外關係로는 事大交隣에 問題點이 있었다<sup>73)</sup>는 點을 들고 있으며, 申叔舟의 北征에 있어서는 結果적으로 三水, 甲山地域의 防備의 充實과 虛水, 羅川地域의 開拓이었다<sup>74)</sup>는 點을 指摘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歸納的 立場에서 實證主義史觀을 또한 展開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그 事件마다 考證을 해야 할 分野의 主題여서 史觀의 부각은 거의 論外로 하였

65) *id.* 廢四郡 地理考. 韓國滿州關係史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54. pp.177~253.

66) *id.* 大邱藥令市の起源について. 京城帝大史學會報. 京城, 第13輯(1938), pp.1~30

67) *id.* 朝鮮史に於ける北方問題の意義. 城大學報. 1938年 12月 1日字.

68) *loc. cit.*

69) *id.* 廢四郡 問題管見. 震檀學報. 京城, 第13輯(1941), pp.1~33.

70) *id.* 李氏朝鮮 世祖 때의 北方移民政策. 震檀學報. 京城, 第15輯(1947), pp.90~113.

71) *loc. cit.*

72) *loc. cit.*

73) *id.* 韓國滿州關係史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54. pp.1~28.

74) *ibid.* pp.87~128.

고, 그 事件 自體에 執着되어 因果를 究明한 史實이기 때문에 그는 全體的인 範圍를 設定하고 그 範圍 속에서 思惟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조그마한 主題를 잡고 그에 대한 是와 非를 史的 觀點에서 究明해낸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은 書誌學 論著에서도 散見된다.

## 2. 書誌學에 있어서의 鶴山の 位置

### ① 袖珍本 規定, 解題 및 活字

그의 論考를 보면,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古書 및 袖珍本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規定이요, 둘째는 板本 및 書誌學者로서 익혀야 할 古書나 參考書로서의 解題 등이고, 셋째는 活字에 대한 考證이다.

첫째의 경우는 <朝鮮古書 이야기>로 비롯되었는데, 그가 본 古書의 規定은 時間性이다.

그 時間性은 바로 宣祖 25年을 두고 말하는데, 그 이전의 出版物을 貴重本으로 본 데 있으며, 木板本이나 活字本은 물론, 심지어는 寫本까지도 이에 準據시키고 있다.<sup>75)</sup> 그 까닭은 壬辰亂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書籍이 大部分 遺失된 點에서 그 貴重性을 強調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理由로는 對外와의 關係에서이다. 日本의 경우, 貴重本의 時期가 慶長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時期를 비추어 보면 正確치는 않지만 대체로 宣祖 年間이었다는 데 있고, 中國의 경우를 보면 宋·元本이 萬曆 年間까지 그 影響이 짙게 나타나 있었다는 데서 時期的으로 보면 正確치는 않지만 대체로 宣祖朝에 該當된다<sup>76)</sup>는 點이 그의 論據이다.

冊이 稀貴하다는 理由로서 든 것을 보면, 戰爭으로 말미암은 槧과 冊을 所重히 여기지 않은 槧, 종이가 좋으므로 말미암아 壯版紙나 塗槧紙로 轉用한 데서 오는 冊에 대한 認識의 不足性에 있다<sup>77)</sup>고 論及하고 있다.

그가 考證한 高麗版의 特色을 보면, 版式의 경우 界가 없고 魚尾가 없으며 설사 있다해도 上魚尾만 있을 뿐이었고, 版心題나 面數의 記錄은 대체로 草書로 되었으며, 字體를 보더라도 宋版의 影響을 받아 歐陽詢 體나 顏眞卿 體가 있었다<sup>78)</sup>고 하였고, 또한 元의 趙松雪 體의 影響도 있었다는 點을 들고 있으며, 劃과 點을 정정껏 쓴 것은 高麗版에서만 볼 수 있는 現狀이며, 古朴과 素朴(厚朴古拙)한 一面도 보이고 있

75) *id.* 朝鮮古書 이야기 上. 博文. 京城, 第13輯(1939. 12.), p.14.

76) *ibid.* pp.14~15.

77) *loc. cit.*

78) *id.* 朝鮮古書 이야기 下. 博文. 京城, 第15輯(1940. 2.), p.18.

다<sup>79)</sup>고 究明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佛經을 제외한 避諱도 中國書를 模倣한 것<sup>80)</sup>을 附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그의 論證을 보면 <朝鮮古書 中の 袖珍本><sup>81)</sup>에 나타난 一面도 規定하고 있다.

朝鮮本이 唐版이나 洋裝本 보다 크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袖珍本 만은 손바닥 보다도 작은 冊이라고 그 크기를 定해 놓고서,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旅行할 때 소매 속 또는 行囊 속에 넣어 두었다가 언제든지 손쉽게 꺼내 읽으라는 데 있고, 가지고 다니는 데도 가볍고 편하도록 한 데 있다<sup>82)</sup>고 했다.

그가 規定한 크기를 보면 匡郭의 크기가 長이 4寸, 廣이 3寸이며, 壬辰亂 이전에 는 없었고, 이후에만 몇 가지 있었을 뿐<sup>83)</sup>이라고 論證하고 있다.

그가 든 袖珍本을 보면 「東史撮要」를 비롯하여 12種<sup>84)</sup>을 列擧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朝鮮史, 朝鮮地理, 漢詩, 日用便覽, 術書, 醫書, 佛書, 科學用韻書 등<sup>85)</sup>으로서 지금의 書籍과 比較해 보면, 簡略한 辭典類처럼 큰 裝幀을 작게 한 데 主眼을 둔 製冊들이다.

그 刊年을 보면 上限을 肅宗朝로 보고 있으며, 印刷史 上에서 占하고 있는 地位는 質的, 量的으로 比重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만든 動機만은 實用에 있었음<sup>86)</sup>을 말하고 있다. 역시 營利的 目的만은 아닐 것이며, 文化遺産의 創造에 主眼을 둔 것으로 解釋된다<sup>87)</sup>고 하였다.

그 밖에 또 하나의 경우를 보면 <大邱刊行的 朝鮮本>이다.

木板印刷가 高麗朝에 發展되었고<sup>88)</sup>, 活字印刷가 高麗末<sup>89)</sup>이라는 事實은 中國의 影響을 받은 데 있으며, 固有性을 發揮한 것은 文化伸張의 一面으로도 看做된다<sup>90)</sup>고 하였고, 그 중 「壯子齋齋口義」나 「唐陸宣公集」 등<sup>91)</sup>은 大邱에서 出版되었는데, 當時

79) *loc. cit.*

80) *loc. cit.*

81) *id.* 朝鮮古書 中の 袖珍本. 朝光. 京城, 7卷7號(1941. 7.), pp.119~123.

82) *loc. cit.*

83) *loc. cit.*

84) 「增補萬寶」, 「四醫經驗方」, 「利見」, 「詩韻袖珍」, 「茶毗作法」, 「八道要覽」, 「雜方集成」, 「周公解夢全書」, 「切用方」, 「增補三韻通考」, 「杜律」, 「銅板袖珍日用方」. 《*loc. cit.*》

85) *loc. cit.*

86) *loc. cit.*

87) *loc. cit.*

88) 春山仁榮, 大邱刊行的朝鮮本. 大邱府史. 大邱, 大邱府, 1943. p.169.

89) *loc. cit.*

90) *loc. cit.*

91) 이 외에도 그는 모두 85種의 書名과 卷·冊數 및 形態의인 面을 記述하고 있다. 《*ibid.* pp.174~188.》

大邱가 慶尙道の 政治, 經濟, 文化의 中心地였다<sup>92)</sup>는 것을 내세웠는가 하면, 刊行地로서는 嶺南觀察營, 大邱府, 湧泉寺, 龍淵寺, 桐華寺 등지<sup>93)</sup>라 하였다.

특히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牒’은 朝鮮紙 20枚였다는 事實과 ‘張’은 1枚요, ‘片’은 半枚라는 語彙를 規定하고 있는 點<sup>94)</sup>이라 하겠다.

## ② 板本과 그 解題

이와는 달리 板本 및 解題類에 있어서, 魏慶之의 宋 이전의 詩話 選集 20卷과 黃易가 쓴 그 補遺 1卷으로 된 「詩人玉屑」는 原來 宋의 元本을 覆刻한 風潮가 아니라, 日本의 正中本을 將來해다가 刊行<sup>95)</sup>한 點으로 보아 이는 和本이 朝鮮에서 刊行된 最初의 書로 看做되며, 韓·日 出版文化史 上에도 興味 있는 일이라는 點<sup>96)</sup>을 指摘하였다. <朝鮮古地誌 數種에 對하여>라는 論考를 보면, 朝鮮文化史 研究에 있어서의 必讀書를 解題<sup>97)</sup>해 놓고 있는가 하면, <閑話>에서는 「三國遺事」의 傳來 版種을 列擧하고 뒷거래의 樣相과 價格을 論하였으<sup>98)</sup>, 1460年 申叔舟 등이 豆滿江 内外에 居住하는 女眞族 征伐의 始末書였던 「北征錄」의 去來樣相도 論及<sup>99)</sup>하였다.

<「太平通載」殘卷 小考>에서는 新羅 「殊異傳」의 逸文을 比較하여 「殊異傳」과 「古本殊異傳」, 「新羅殊異傳」 등은 同一本으로서, ‘古本’이라 함은 單純히 時代的으로 오해를 말하였고, ‘新羅’라 함은 時期를 記入한 데 不過하였던 點<sup>100)</sup>이라고 論證하고 있다. 그 著者도 朴寅亮 또는 崔致遠이라는 兩論에 대하여, 朴寅亮으로 肯定하고 있다.<sup>101)</sup>

또한 그 뿐만 아니라, <古書雜記> 속에서는 「拙藁千百」이 字體가 古勁·素朴하여 高麗 刊本 중에서는 첫째가는 것<sup>102)</sup>이라고 하였고, 「西河先生集」도 字體가 古朴하며 紙質이 蒼然한 古麗 刊本이라는 點 등<sup>103)</sup>을 論하고 있다.

<「東國史略」에 대해서>는 朝鮮時代에 가장 널리 읽혀진 刊本으로 高宗 32年의 整理字本, 肅宗·宣祖時의 木板本, 中宗時의 甲辰字本 등<sup>104)</sup>이 있었음을 略述하였고,

92) *ibid.* p.172.

93) *ibid.* p.173.

94) *ibid.* p.174.

95) 李仁榮, 淸州本 「詩人玉屑」. 博文. 京城, 第5輯(1939. 2.), pp.18~20.

96) *loc. cit.*

97) *id.* 朝鮮古地誌 數種에 對하여. 博文. 京城, 第7輯(1939. 5.), pp.15~17.

98) *id.* 閑話. 博文. 京城, 第10輯(1939. 8.), pp.20~21.

99) *loc. cit.*

100) *id.* 「太平通載」殘卷 小考. 震檀學報. 京城, 第12輯(1940), pp.202~210.

101) *loc. cit.*

102) *id.* 古書雜記. 春秋. 京城, 3卷6號(1941. 6.), p.190.

103) *loc. cit.*

104) *id.* 「東國史略」について. 城大學報. 1942年 9月 1日字.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여는 詳細한 解題와 「李朝實錄」과의 對比를 통한 校勘도 밝히어 놓았다.<sup>105)</sup>

### ③ 活字

특히 活字에 있어서는 〈鮮初의 活字版에 대해서〉<sup>106)</sup>와 〈癸未字에 대해서〉<sup>107)</sup>라는 論考를 發表하여, 癸未字가 이미 「宋朝表淺摠類」, 「十七史纂古今通要」,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등이 있었던 事實을 發見하였다. 이는 癸未字 覆刻本인 「禮記淺見錄」의 字體, 版式과 同一하다는 點에 根據하여 癸未字로 論證한 것<sup>108)</sup>이다.

庚子字의 경우만 하더라도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古賦」를 비롯하여 8種<sup>109)</sup>의 古書를 檢討하고, 癸未字나 甲寅字보다 字體가 작으며 모두 11行 21字本 이라는 것<sup>110)</sup>을 究明해 놓았는데 하먼, 甲寅字도 活字가 美麗할 뿐만 아니라 140餘年 간이나 持續 使用되었으며, 이 活字의 刊本은 世宗 때의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 成宗時의 것이 많다는 것<sup>111)</sup>을 實查하여 論證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論證을 거치는 동안 魚尾로써 古活字版 印出年代의 推定을 하였는데, 世宗朝에는 上下下向 黑魚尾가, 文宗 이후부터 成宗 後 것은 上下內向 黑魚尾, 中宗 이후부터 宣祖時代 것은 大黑口 上下內向 三葉花紋魚尾와 上下內向 三葉花紋魚尾 3種<sup>112)</sup>이 있었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丙辰字, 庚午字, 乙亥字, 乙酉字, 甲辰字, 癸丑字, 丙子字, 改鑄甲寅字 등<sup>113)</sup>에 대한 論考도 있다.

특히, 宣祖 25年 이전의 活字本에 대하여는 民間活字가 開城, 平壤, 舒川, 京城, 慶州京邸 등지<sup>114)</sup>에 散在했다고 되어 있다.

이상 敍述한 바와 같이, 鶴山은 「清芬室書目」을 執筆하기 이전에 이미 歷史學者로서의 比重이 큰 新民族主義史觀을 確立하였는가 하먼, 實證主義 立場에서도 歷史 및 書誌學 敍述의 論考가 있어 學界에 커다란 比重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의 「清芬室書目」執筆의 動機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5) *id.*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對하여. 震檀學報. 京城, 第10輯(1939), pp.134~144, 159~175.

106) 春山仁榮, 鮮初의 活字版について. 學叢. 京城, 第1輯(1943. 1.), pp.99~101.

107) *id.* 癸未字について. 學叢. 京城, 第2輯(1943. 12.), pp.89~92.

108) *loc. cit.*

109) 「少徵家熟點校附普通鑑節要」,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前漢書」, 「論語集註大全」, 「資治通鑑綱目」, 「史記」, 「新鑄決科古今原流至論續集」, 「經學隊仗」. 《春山仁榮. *op. cit.* p.100.》

110) *loc. cit.*

111) *loc. cit.*

112) *ibid.* p.101.

113) 李仁榮, 文祿役直前の朝鮮活字. 書物同好會會報. 京城, 第18號(1943. 3.), pp.12~14.

114) *loc. cit.*

### Ⅲ. 「清芬室書目」執筆의 動機

「清芬室書目」의 敍에서 밝힌 바와 같이, 鶴山은 1937年 京城大學을 나오면서부터, 그가 그 이전에 鍊磨했던 史學的 知識과 書誌學的 知識은 不可分離의 것이니 이의 實現을 위하여 古書蒐集에 들어 갔다.<sup>115)</sup>

그는 “‘目錄學’이란 近代의 이론바 ‘書誌學’이요, 歷史學에 있어서의 하나의 基礎科目”<sup>116)</sup>이라고 論及한 바 있다. 이러한 論據로 미루어 보아, 그가 書誌學에 關心을 둔 것은 아마도 史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의 基礎科學으로서 必要했기 때문일 것이다.

延專, 普專, 平神 3校에서 教鞭生活을 하는 동안, 史料의 集成이 史學의 研究에 切實함을 깨달았던 탓인지, 혹은 그가 楊氏가 밝힌 「日本訪書志」속에서의 “韓國 古刻本이 日本에 半量 이상 散在하고 있다”<sup>117)</sup>는 記錄을 보았던 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1937年 봄 京城大學을 나온 뒤 古活字本에 着眼하여 京城에 滯留하면서 자주 書籍商을 接하고 古書店을 찾아서 京城을 中心으로 한 古書의 貴重本을 蒐集하였는가 하면, 때로는 嶺南 各處에서 傳來되어 온 古本을 蒐集한 바도 있었다.<sup>118)</sup>

그가 蒐集한 것은 一般 書籍商과는 달리 어떠한 利益을 目的으로 한 蒐集이라기 보다는 板本이 價値가 있으면 萬金을 아끼지 않고 入手했던 事實을 여러 면에서 알 수 있다.

그 蒐集의 逸話를 大略 一瞥해 보면 다음과 같다.

鶴山은 嘉藍 李秉岐 教授와 平素 親分이 두터웠던 탓인지, 嘉藍이 厓留 權眞奎氏의 所藏本 「三國遺事」<sup>119)</sup> 殘本 3卷 1冊을 借覽하고 感歎했던 말을 듣고 그의 書齋 清芬室<sup>120)</sup>에 入手했는가 하면, 古書店의 元老 故 李聖儀氏의 華山書店에서 「大慈普

115) *id.* 清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蓮閣, 1968. 敍.

116) *loc. cit.*

117) *loc. cit.*

118) *loc. cit.*

119) *ibid.* pp. 2~3.

120) 그의 妻 玉靜端 女史 敎示에 의하면 ‘清芬室’은 그의 집 몇 棟에 걸치는 넓은 書齋 중에서 古書만 蒐集, 保管, 研究하던 이론바 書院規模의 큰 尊經閣 같은 漢籍室이었다. 그의 집은 垆地가 1500坪, 平壤市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高臺廣室 二層집이었으며, 그 당시에도 이미 現代式 스텝 施設이 完備되었다고 한다. 洋屋 형식으로 된 建物에는 ‘清芬室’ 이외에도 여러 칸의 書齋가 있었으며, 많은 骨董品을 따로 保管한 特室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古書를 계속 蒐集하기는 했으나 ‘清芬室’이 마련된 뒤로는 더욱 熱을 올려 古書를 蒐集했으며, 이렇게 蒐集한 그의 古書와 骨董品은 當時 時價로도 몇 億을 呼價할 程度였다고 述及했고, 이 所藏品들은 金日成大學의 強要에 의해 寄贈形式으로 移管되었다는 後聞을 들었다고 한다.



覺禪師書」<sup>121)</sup> 1卷 1冊을 蒐集했고, 그 밖에 1944(甲申)年 봄 그 當時 돈으로 一金 100圓을 가지고 「唐翰林李太白文集」<sup>122)</sup> 5卷 1冊을 蒐集한 바도 있었다.

더우기 놀랄 만한 것은, 1939(己卯)年 「北征錄」<sup>123)</sup> 6卷 2冊 중 1冊을 千金을 주고 入手했다는 事實은 「清芬室書目」에 收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後世 書誌學者들의 稱頌도 藉藉하듯 清芬室 所藏本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값이었다<sup>124)</sup>고 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天下에 唯一無二한 孤本인 「古文眞寶大全後集」<sup>125)</sup> 殘本 32葉 1冊도 1942(壬午)年 봄에 平壤으로 還鄉할 때 嘉藍 李秉岐 教授로부터 分冊 중 下冊을 寄贈받은 일까지도 있었다.<sup>126)</sup> 이러한 寄贈은 恩惠에 대한 報答이라기 보다 愛書家요, 書誌學의 同志로서의 貴重本을 나누어 가진다는 아름다운 惠禮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1938(戊寅)年 8月 「建州紀程圖記」<sup>127)</sup> 1卷 1軸을 우연히 忠淸南道 靑陽郡 居住 申忠一의 後孫의 집에서 入手하여 清芬室에 轉入 所藏하였는가 하면, 그 翌年인 1939(己卯)年에는 父親 壽樂堂 李春燮 翁의 回甲記念으로서 200部를 影印, 1940(庚辰)年 여름에 完刊하여 世上에 廣布<sup>128)</sup>한 바도 있었다.

이와 같이 古書蒐集에 熱을 올리고 分析에 沒頭하던 鶴山도, 解放 전인 1942년에 故鄉인 平壤에 돌아간 이후는 與件이 如意치 않아 古書를 入手하는 길도 거의 끊어졌다.<sup>129)</sup> 그가 古書蒐集家요, 書誌學者의 名望으로 寄贈이 많았던 例도 없지 않았으나, 그 이후는 距離上 새로 發見된 古本의 情報를 알려주는 사람도 드물어 前에 비해 100分の 1·2를 占했다<sup>130)</sup>고 自身이 述懷했고, 冊價도 너무 沸騰하여 購入이 困難했었다<sup>131)</sup>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蒐集한 藏書는 결코 적지 않았으며, 蒐集本 중에는 比較的 좋은 冊들이 많아, 이의 書目을 作成하여 學界에 資한 바가 있었으니, 이것이 곧 「清芬室書目」의 執筆의 動機라 하겠다.

121) 李仁榮. *op. cit.* pp.190~191.

122) *ibid.* pp.215~217.

123) *ibid.* pp.258~260.

124) *loc. cit.*

125) *ibid.* pp.399~401.

126) *loc. cit.*

127) *ibid.* pp.441~442.

128) *loc. cit.*

129) *ibid.* 跋.

130) *loc. cit.*

131) *loc. cit.*

## Ⅳ. 收錄範圍와 編成體制

### A. 收錄範圍

鶴山이 自己의 所藏本을 解題하여 收錄한 「清芬室書目」의 收錄範圍를 보면, 高麗 高宗 9年 刊인 林椿의 「西河先生集」<sup>132)</sup>이 가장 오래 된 것이었으니 이를 上限으로 볼 수 있고, 1900(光武4)년에 刊行된 安鼎福의 「順菴先生文集」<sup>133)</sup>이 時代的으로 現代와 가장 接近되므로 下限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西紀 1222년부터 1900年 사이에 出刊된 約 700年 間의 書籍을 收錄한 셈이다.

收錄된 卷·冊數는 모두 540種 3097卷 1444冊 2軸 25帖이다.

그는 다퉈서 善本만을 蒐集하였던 點과 또한 自己의 蒐集本을 中心으로 解題했던 點으로 그 收錄範圍가 매우 限定되어 있다.

그러나 大體的으로 보면 書籍史 속에서 上代에 속하는 文獻은 逸佚되었던 點인지 蒐集되지 않았었고, 大體로 卷子本 이후 折帖本은 물론, 그 이후에 發刊된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本 등을 收錄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중에는 高麗本으로서 「西河先生集」<sup>134)</sup>, 「禪門拈頌集」<sup>135)</sup>, 「佛祖三經」<sup>136)</sup>, 「禪林寶訓」<sup>137)</sup>, 「大慧普覺禪師書」<sup>138)</sup>, 「禮記」<sup>139)</sup>, 「東國李相國集」<sup>140)</sup>, 「大方廣佛華嚴經一藏要解」<sup>141)</sup> 및 「大佛頂萬行首楞嚴經」<sup>142)</sup> 등 모두 9種이 收錄되어 있으며, 刊年 未詳分의 寫本 및 刊本도 여러 種類가 收錄되어 있다.<sup>143)</sup>

이러한 著述을 鶴山은 다음과 같이 編成, 排列하고 있다.

### B. 編成과 排列

大體的으로 보면 經, 史, 子, 集 속에 모두 들 수 있는 書籍들로서, 그의 蒐集意

132) *ibid.* p.74.

133) *ibid.* p.537.

134) *ibid.* p.74.

135) *ibid.* pp.41~43.

136) *ibid.* pp.186~187.

137) *ibid.* pp.187~188.

138) *ibid.* pp.190~191.

139) *ibid.* pp.133~134.

140) *ibid.* pp.76~77.

141) *ibid.* p.188.

142) *loc. cit.*

143)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圖가 全體를 網羅한 것이 아니어서 經部의 경우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孝經類, 小學類만 있고, 五經總義類, 樂類의 書는 缺급되지 않았다. 史部의 경우 역시 正史類, 編年類, 記事本末類, 別史類 등 諸史類가 보인다. 또한 雜史類, 詔令奏議類, 傳記類, 地理類, 職官類, 政書類가 收錄되어 있으나 史抄類, 載記類, 時令類는 없다.

子部에서도 儒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類書類, 小說家類, 釋家類, 道家類는 있어도 法家類, 藝術類, 譜錄類, 雜家類는 없고, 集部에도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詞曲類는 있어도 詩文評類는 없다.

이와 같이 蒐集한 書籍을 鶴山은 <表 3>과 같이 編成하고 있다.

<表 3> 「清芬室書目」의 編成<sup>144)</sup>

卷第一	壬辰以前 刻本及 抄本	朝鮮人撰述	上
卷第二	〃	〃	下
卷第三	〃	外國人撰述	上
卷第四	〃	〃	下
卷第五	壬辰以前 活字本	朝鮮人撰述	
卷第六	〃	外國人撰述	上
卷第七	〃	〃	下
卷第八	壬辰以後 刊本及 抄本	朝鮮人撰述	上
卷第九	〃	〃	下

이를 보면, 첫째 時期를 壬辰亂 前後로 區分해 놓았고, 板本을 刻本, 抄本, 活字本, 刊本の 順으로 類別하여 놓았고, 韓國人 著述과 外國人 著述로 區分하여 놓았던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이, 時期를 壬辰亂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은 것은 宣祖 25년에 勅發되었던 壬辰亂 이전의 貴重本과 壬辰亂 이후의 稀貴本 만을 類別하였던 것으로서, 原來 그의 排列 體制를 보면 「清芬室書目」이 冊의 內容을 重視한 것이 아니고 板本과 그 刊年을 重視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編成, 排列된 것으로 斟酌된다.

### C. 書目的 形成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書目作成의 形式을 보면 一定치는 않으나 大體로 <表 4>와 같은 順位를 지키고 있다.

144) 李仁榮, *op. cit.* pp.5~6. 總目.

〈表 4〉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書目作成의 形式

書名	○本	○卷	○冊
刊行時期.	刊行地.	刊行處.	刊·寫本.
著者事項.	○邊.	○界.	○行○字. 字經.
匡郭의 크기.	註.	○口.	○魚尾. 版心題.
耳題.	欄外題.	陰文.	四聲. 句讀. 序. 跋.
木記.	插圖.	紙質.	刻手. 避諱. 印記. 助緣.
價格.	購入處.	引用.	按.

※ 「清芬室書目」 중에 나타난 諸例를 綜合하여 項目順으로 區分해 본 것이나, 間或 그 順位가 先後로 바뀐 경우도 있고, 該當 事例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그는 現代 古書編目的 形式과 거의 類似하게 書名을 앞 세우고 完本, 殘本, 缺本, 零本 등의 與否를 밝히고 있으며, 다음으로 卷數, 冊數를 밝히고 있다.

現代書의 編目과는 달리 出版地와 出版處가 記入體 속에는 없으나 對照事項에 明示된 것은 아마도 記述의 便宜에서 온 듯하다. 對照事項에 明示된 것을 보면 版의 形式에서의 匡郭의 種類, 匡郭의 크기, 界, 行字 및 字經, 黑口 및 白口, 魚尾 등은 있으나 象鼻는 없다. 插畫 속에서도 木記, 裝飾, 插畫는 있으나 書牌는 없다. 標點 속에서도 陰文, 四聲表示, 句讀, 篇章 등은 있으나, 鬮(白匡, 墨等, 기타), 墨圍, 旁抹, 直畫 등은 없다. 標記 속에서는 版心題, 耳題, 欄外題 등이 記述되어 있다. 그리고 紙質은 表示되어 있으나, 裝幀에 대한 圖書形態의 記述은 表示되어 있지 않다.<sup>145)</sup>

이상 項目에 대한 記述事項을 보면, 現代書의 編目보다는 훨씬 詳述되어 있고, 字字句句가 實物을 調査하여 그 結果를 記錄하고 있다.

특히, 이 밖에도 序와 跋의 有·無는 물론, 刻手, 避諱, 印記, 助緣事項, 冊價, 購入處를 明示하였다. 또한 '按' 으로서 自己의 意見을 敘述하여 字體 등 여러 參考事項을 敘述하고 있다.

## V. 內容과 性格

「清芬室書目」의 內容을 經, 史, 子, 集으로 四部分類法에 依據하여 類別해 보면 〈表 5〉와 같다.

145) 이는 于震寰 教授의 善本圖書編目法(于震寰, 善本圖書編目法. 圖書館學季刊, 臺北, 7卷4期, pp.584~594.)에 根據하여 項目을 抽出하고 對比해 본 것이다.

〈表 5〉 「清芬室書目」에 收錄된 書籍의 內容과 性格

部類 卷次	經					史					子					集			計											
	易	書	詩	禮	春秋	孝經	四書	小學	諸編 正·別	雜史	詔令	傳記	地理	職官	政書	儒林	兵家	農家		醫家	天文	術數	類書	小說	釋家	道家	楚辭	別集	總集	詞曲
1	1	1	1				8	4	4	3	5			2	10		2	5	1	1		1	16			2	2		69	
2																											39	41	53	
3	1		1	4	3	1	2	9	5		2	2			11	1	1	5		1	2			6					57	
4																						30		2	20	15			67	
5	2				1		1	11	1	4	3			1	1	2					1		4			10	20		62	
6	1	2	2	2	5		2	25		1	3	1		2	5	2					1	4	1						59	
7																			7						1	19	24		51	
8	1			4				2	11	1	10	15	4	5	3	1	2	1			3		3				1	1	68	
9							4		1										1							43	5		54	
計	6	3	3	11	6	1	4	22	47	17	2	22	26	4	10	30	6	5	19	1	3	10	1	54	6	3	134	80	1	540
	59					128					135					218														

※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書名을 四部分類法에 依據 分類, 集計한 것임.

經部 59種, 史部 128種, 子部 135種, 集部 218種 등 都合 540種을 收錄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全分野가 網羅된 듯하나, 前章에서 指摘한 것처럼, 經部에 있어서의 五經總義類 및 樂類, 史部에 있어서의 史抄類, 載記類 및 時令類, 子部에 있어서의 法家類, 藝術類, 譜錄類 및 集部에 있어서의 詩文評類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所藏書 중에 本來부터 없었던 것인가, 또는 일부러 이것을 除外하고 解題한 것인가는 알 수 없다.

大體로 「清芬室書目」에 收錄된 諸書는 모두 固有의 性格이 뚜렷하고 內容이 充實한 典籍만을 鑑定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內容目次<sup>146)</sup>, 內容解題<sup>147)</sup>, 淵源<sup>148)</sup>, 傳記<sup>149)</sup>, 校勘<sup>150)</sup>, 評<sup>151)</sup>, 勸讀<sup>152)</sup> 등의 略述이 바로 그것이다.

146) 「帝王歷年記」, 「童子習懸吐」, 「農事直說」, 「標題音註東國史略」, 「要集」, 「閩閩叢書」, 「勝國新書」, 「四編證疑」, 「雲谷集」, 「紫巖錄」. 《李仁榮. *op. cit.* pp.5~6. pp.38~39. p.65. pp.254~255. pp.279~280. pp.429~430. p.439. pp.499~501. pp.526~527. pp.533~534.》

147) 「西征記」, 「觀音現相記」, 「村家救急方」, 「海東名迹」, 「杞翠軒別稿」, 「晉山世稿」, 「夾註名賢十抄詩」, 「十抄詩」, 「風騷軌範」,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後集」, 「佛祖三經」, 「北征錄」, 「皇華集」, 「新編大東聯

그러나 鶴山이, 前章에서 이미 敍述한 바와 같이, 調查 중에서 가장 力點을 둔 것은 標題(Heading), 記入體, 對照事項 등이다.

그는 이 調查 중에서 匡郭의 種類, 匡郭의 크기, 界, 行字 및 字經, 魚尾 등의 版式과 木記, 插圖 등의 插畫와 陰文, 四聲表示, 句讀 등의 標點과 版心題, 耳題, 欄外題 등 標記事項과 書法の 體制에 力點을 두고 形態書誌學의 分析을 한 바 있다.

이러한 分析은 어떠한 基準을 定해 두고 演繹의으로 考究하여 그러한 事實이 實物로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推定 보다는, 韓國의 書籍이 이루어져 있는 形態가 어떻게 되었으며, 長期間 여러 資料를 接하는 가운데서 一致를 이루고 있는 現象을 統計的 方法을 통하여 考究하려는 한편, 古書를 鑑定하는 동안 過去의 經驗을 통해서 諸事項을 있는 그대로 敍述하고 있다.

이러한 敍述은 後世 書誌學家들의 古書鑑定에 있어 자못 높은 基準을 暗示해 주고 있는 面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의 具體的인 事項을 論及해 보고자 한다.

## Ⅵ. 刊年の 推定과 그 基準

刊年の 推定에는 字體의 神韻을 비롯하여, 書史學的인 面과 그 밖에 校勘을 要하는 非形態的인 面도 있을 수 있으나,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鶴山의 記述 中에는 다만 形態書誌學的인 面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刊年の 推定에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즉 書名事項, 著者事項, 出版事項 등에서도 問題될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鶴山의 板本의 鑑定에서 얻어진 結果의 力點은 木板本, 活字本을 막론하고 版式, 插畫, 標點, 標記에 두고 있으니, 그 中에서도 刊年과 關係가 깊은 事項을 抽出해 보면 匡郭의 種類, 匡郭의 크기, 界, 行字, 黑口, 魚尾, 紙質, 刻手, 字體, 避諱, 活字別의 特性 등이다.

珠詩格, 「律賦表箋」, 「殿策精粹」, 「東人策選」, 「新刊惠民御藥院方」, 「火砲式診解」, 「東國歷代總目」, 「征倭實記」, 「朝天目錄」, 「癸史」, 「關西勦匪錄」, 「海東名將傳」, 「漢溪軒題話雜存」, 「佔畢齋精選靑丘風雅」. 《*ibid.* p.9. pp.44~45. p.62. pp.67~68. pp.107~109. pp.116~117. pp.119~122. pp.129~130. pp.157~159. pp.186~187. pp.258~260. pp.297~298. p.300. pp.301~302. pp.305~306. pp.306~307. pp.361~364. pp.423~424. pp.435~436. pp.439~440. pp.442~443. pp.445~446. pp.446~447. pp.452~455. p.501. pp.540~541.》

148) 「筆苑雜記」, 「陳法」, 「御制兵將說」. 《*ibid.* p.10. pp.66~67. pp.278~279.》

149) 「景賢錄」, 「續蒙求分註」. 《*ibid.* pp.15~17. pp.17~18.》

150) 「三國遺事」. 《*ibid.* pp.2~3.》

151) 「作聖圖論」, 「老子處齋口義」, 「南川集」. 《*ibid.* pp.49~52. pp.179~180. p.531.》

152) 「象院題語」. 《*ibid.* pp.506~508.》

A. 匡郭의 種類

그가 본 書法의 體制 중에서 匡郭의 種類를 어떻게 보았는가는 確實하게 알 수 :  
 으나, 記錄上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체로 <表 6>과 같다.

<表 6> 匡郭의 種類 (「淸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匡郭의 種類	朝 代	年 代	匡郭의 種類
高 恭	宗 讓	1222} 單, 左右雙 1391}		1474	雙
	太 祖	1397		雙	1475} 單 1482}
定 宗		1399} 單 1400}		1483} 雙 1485}	
	太 宗	1401		雙	1486} 單 1487}
		1404} 單 1418}		1488	雙
	世 宗	1419} 單 1422}			1489
		1425} 雙 1431}			1491
		1433		雙, 單	1492
		1436} 雙 1442}		1493	雙
		1447		雙, 單	燕 山
文 宗		1451	雙		1500
	端 宗	1453	單		1501} 雙 1502}
		1454	單, 雙	中 宗	1511
	世 祖	1456} 單 1458}			1512
		1460		上下單	1518
		1461	單		1519
		1462	雙		1520} 單 1528}
		1463} 單 1464}		1531} 雙 1533}	
		1465		雙	1535} 雙, 單 1536}
	睿 宗	1469	單		1537} 單 1540}
成 宗		1472} 單 1473}			1541} 雙 1543}

		1544	單			1653	單
明	宗	1546	單			1655}	左右雙
		1547	單, 雙			1658}	
		1549	單			1658	單, 雙
		1555	單, 雙	顯	宗	1659	雙
		1556	雙			1660	單
		1558	雙, 單			1661}	雙
		1562}	單			1670}	
		1566}			肅	宗	1675}
		1567	雙			1686}	
宣	祖	1572}	單			1687	單
		1575}					1693
		1575	雙			1701	單
		1576}	單			1707	雙
		1577}					1713
		1577}	雙	景	宗	1721}	單
		1583}				1723}	
		1585	單, 雙	英	祖	1727	雙
		1590	單			1737	單, 雙
		1591	雙			1741	雙
		1592}	單			1744	單
		1605}					1745
		1608	雙			1773	
光	海	1610	單	正	祖	1781	雙
		1611}	雙			1784}	單
		1622}				1791}	
仁	祖	1628}	雙			1794}	雙
		1632}				1798}	
		1633	單	純	祖	1822	雙
		1634	雙			1832	單
		1635}	單			1846	單
		1643}			憲	宗	1849
		1645	雙			1854}	單
		1648	單	哲	宗	1859}	
孝	宗	1651}	單	高	宗	1866}	單
		1652}				1900}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麗末 高宗, 恭讓王 간의 西紀1222년부터 1391年 사이에는 上下가 單邊 뿐이고 左右가 雙邊인 點이 特出하다.



그 당시의 實物을 直接 目見할 수 없어 匡郭의 厚薄과 大小는 알 수 없으나, 韓國 初期의 刊本으로 看做되는 麗末의 板本은 아마도 上下單邊, 左右雙邊으로 된 것이 特徵<sup>153)</sup>이 아닌가 한다.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太宗 年間과 中宗, 宣祖, 孝宗, 景宗 年間に 上下單邊, 左右雙邊이 있었다<sup>154)</sup>는 事實이 또한 特徵이며, 그 밖의 모든 年代는 四周雙邊과 四周單邊이 混有되어 있을 뿐 어느 年間に 單邊이요, 어느 年間に 雙邊이 있었다<sup>155)</sup>는 根據를 뚜렷이 劃分할 수 없다.

따라서 鶴山의 刊年推定에 있어서의 匡郭의 種類는 機械的으로 形態書誌學的 側面에서 項目을 設定하고 보았을 뿐이며, 匡郭의 種類를 두고 刊年을 重點으로 推定한 듯 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만 鶴山의 論證에서 보던 여러 朝代에 걸쳐 上下單邊, 左右雙邊의 現狀이 나타나는 點만은 板本을 鑑定할 때 參考로 多少 留意하지 않으면 안 될 事項일 뿐이다. <다음 號에 繼續>

153-155) 表 6. 匡郭의 種類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 韓國圖書館協會 出版案內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 街 100-177 (社) 韓國圖書館協會

☎ (2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 537530

韓國十進分類法 第 3 版	25,000원	古書分類目錄法(上)	3,500원
韓國目錄規則 第 3 版 豫定價	10,000원	韓國十進分類法解說	3,500원
公共圖書館의 施設	5,000원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3,500원
非圖書資料의 整理	3,500원	西洋圖書館史	3,500원
參考奉仕論	3,700원	公共圖書館運營	3,500원
情報科學과 컴퓨터	3,500원	發展途上國의 圖書館	3,500원
情報經濟學原論	4,500원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3,500원
大學圖書館建築計劃	8,000원	中國의 典籍	3,500원
圖書館學概論(專門大)	3,900원	圖書館과 社會	3,500원
圖書館學概論(任鍾淳)	3,500원	大學圖書館	3,500원
韓國圖書館史研究	3,500원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5,000원
圖書館統計 및 評價	3,500원	韓國의 冊板紋樣	20,000원
公共圖書館	3,500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3,500원
韓國目錄規則解說	3,500원	어린이 圖書館	3,800원